

“사법 손길 닿기 어려운 곳 눈물 닦아주고파”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등 광주 고려인마을서 ‘찾아가는 법원’ 행사 격려금 등 전달...고려인문화관 둘러보고 이주동포들 애환 청취도

“사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소외 현장을 찾아 눈물을 닦아주는 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고려인마을과 새날학교에서 ‘찾아가는 법원 행사’를 진행하며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19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전날 박병태 법원장 등 광주지법 관계자 10여명이 고려인마을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 외에도 광주지법 구성원으로 꾸려진 ‘무등봉사단’에서는 노인돌봄센터를 위해 무료 급식용 쌀 20포 (20kg)를 기부했다.

이들은 고려인문화관 등을 둘러보며 광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을을 둘러본 뒤 광주지법 관계자들은 고려인마을 주민 20여명과 함께 고려가족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고려인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박병태 법원장은 “앞으로도 고려인마을뿐만 아니라 사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소외 현장을 찾아 눈물을 닦아주는 법원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8일 새날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한국의 사법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민사 및 형사 재판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법원의 역할과 법률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법률을 직접 적용해보는 체험도 했다. 행사 후에는 광주지법에서 준비한 햄버거 100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고려인마을과 새날학교에서 ‘찾아가는 법원 행사’를 진행했다.

개 학생들에게 전달돼 큰 호응을 얻었다.

고려인마을 관계자는 “광주지법의 고려인마을 방문 행사는 단순한 법률 소개를 넘어 독립 투사 후손 고려인 동포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줬다”며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은 고려인마을 외에도 광주·전남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찾아 온정 나눔 등 공익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인재영 기자



광주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광주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을 맞아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2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10명에게 광주시장상을 수여했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새싹치과 이병원 등 5개 기관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어 시민, 아동학대 대응 인력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대형 퍼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시청 1층 로비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가상현실(VR) 체험존’을 마련, 일반시민이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학대 체험을 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또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미운오리새끼’ 공연도 펼쳐졌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꾸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인 자녀 양육 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담양경찰, 수능 후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는 “최근 2025학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도 및 거리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김장진 생활안전교통과장과 오철욱 여성청소년계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경찰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담양문화회관 일원에서 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신분증 부정 사용 등 탈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권현오 담양경찰서장은 “수능시험 긴장감에서 해방된 학생들이 들뜬 마음에 자칫 범죄나 비행을 범할 우려가 있어 이번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마을돌봄기관 간담회’ 성료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이 주최한 ‘2024 마을돌봄기관 간담회’가 지난 18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을 공유하고, 각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광주시 각 구 가족센터,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광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늘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광주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아동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마을돌봄 서비스 현황과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강남 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광주 아동돌봄 현황을 진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공유함으로써 지역 아동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진 기자



전남개발공사, 취약계층 가스 안전 수호 캠페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MC에너지와 함께 ‘전남 가스사용 취약가구 과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목포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수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이 가스 안전 시각지대에 있는 노후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가스레인지 과열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기기 ‘타이머콕’을 목포 소재 550가구에 총 3천300만원 상당 규모로 보급했다.

협약 기관들은 이날 오후 보급 사업의 첫 걸

음으로 목포시 서산·온금동을 방문해 ‘함께安心! 모두 안전! 취약계층 안전수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20여명의 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지원 가구를 방문, ▲가스안전기기 ‘타이머콕’ 설치 ▲가스시설 안전 점검 ▲화재 안전물품 지원 ▲화재 유발 폐기물 수거 등의 활동을 펼쳤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 안전 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견고히 하고 안전 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산구가족센터,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나눔 행사

광주 광산구가족센터는 (새국어)의 후원으로 지난 16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겨울철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2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김장나눔 행사는 총 800만원의 예산으로 6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대상자 가정

까지 직접 전달했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장은미 센터장은 “김장나눔 행사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후원해 주신 (새국어)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옥근 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가루쌀빵·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는 “최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곡성군과 함께 가루쌀빵을 홍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또쭈뽕~’ 이벤트 참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협 곡성군지부는 곡성에서 재배된 가루쌀로 만든 쌀튀김시에 400여개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쌀 가공식품 소비를 촉진했다. 또한 곡성군이 연말까지 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500명을 추첨해 1만원권 기프트카드와 1만원 상당 지역 쌀을 증정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또쭈뽕~’ 이벤트에 동참을 호소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지역 쌀은 곡성쌀 홍보와 소비 확대를 위해 곡성 관내 지역농협에서 지원한다.



방현용 곡성군지부장은 “가루쌀빵과 ‘또쭈뽕~’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쌀 가공식품 소비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에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목포 신우치과병원, 저소득 청소년 겨울나기 지원

목포시는 “최근 목포 신우치과병원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43개를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시에 지정기탁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우치과병원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2017년 교복비 지원(1천만원 상당)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패딩점퍼 나눔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송영삼 대표원장은 “지역 내 어려운 청소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나눔을 실천해 준 신우



치과병원 원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시에서도 어려운 청소년과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청암대 안경광학과 총동문회, 안경사 시험 준비 격려

순천 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 총동문회는 “최근 청암대를 찾아 제3회 안경사 국가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을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금일 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들은 매년 4회 정도 후배들을 위한 후원 및 격려 방문을 하며 안경광학과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문회는 학과의 MT와 학생회 자치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산학협력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매 학기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양질의 취업 기회 창출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한편 안경광학과는 전남도 벤처동아리 경진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옵티커스와 눈사랑건강지킴이봉사단, VISION 동아리, 보건의료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등을 운영하며 연합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순천=양홍렬 기자

모임

▲담양곡성타임스 창간 16주년 기념식(발행인 현영식, 편집국장 정중대)=25일(월) 오후 3시 담양군 곡성면 금성산성길 200 담양리조트 2층 대연회장(송강홀). 010-3612-0521.

결혼

▲김승수·최춘자씨 아들 인천군, 박태희(대성정밀 대표)·정선옥씨 딸 보람양=23일(토)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062)710-4000, 010-9190-1866.

▲이준·박민숙씨 장남 은식군, 이영희·이선양씨 장녀 예은양=24일(일) 낮 12시 광주 광산구 인방울대로 549(도천동 147-29) 드매르웨딩홀 2층 베일리홀. (062)228-0000, 010-3647-9902.

부음

▲전순영씨 별세, 정금순씨 남편상, 전현태(구 레군청 지리산정원사업소 정원시설팀장)·준태·민주씨 부친상, 노하영·조서영씨 시부모상, 안현섭씨 장인상=발인 20일(수) 낮 12시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302호실(010-4653-1003).